

찬양과 기도의 달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말씀이 들리면 축복,
만지면 은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안내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복음 9:1-14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539장 /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통일찬송가 483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오정은 집사, 김훈테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이 땅의 황무함을 (부흥)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김태성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열왕기하 8:16-29, 9:27-28, 10:12-14, 11:1-16

오므리 왕조의 동맹을 맺은 결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 ▶ 9 월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찬양과 기도의 달입니다.
- ▶ 삶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치유받고 기도로 천국의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1. 금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 오늘 주일예배에 성찬예식을 가집니다. 기도와 말씀, 결단과 헌신으로 참여하십시오.
3. 추석(9/24)을 맞아 WOW 모임에서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풍성함과 감사가 넘치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4. 다음 주일(9/30)은 CUMC 의 Work Day 입니다. 사택 정원 관리를 위한 도움을 요청 했습니다. 관리위원회 주도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5. 교회 Lease 1년 연장/재계약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17주간 성경 일독운동이 Oikos 사역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점검해 줍시다.
7.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8. 3주년감사찬양집회와 준비를 위한 Relay 기도가 계속됩니다. 초청 대상자를 예배위원회(최내권 집사)에 알려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섬김이

주일예배기도	9/16	9/23	9/30	10/7
	최내권집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최선윤집사
금요일예배기도	9/21	9/28	10/5	10/12
	구 민 집사	김태성집사	유동숙집사	유덕하집사
주일헌금위원	9/16	9/23	9/30	10/7
	김훈태집사/오정은집사		홍현근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9월			10월
	정줄리권사			구 민 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 요한복음 8:31-38

이집트의 400 년과 유다 멸망 이후 600 년, 즉 1,000 년 이상 종살이를 했음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자부하며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역사를 망각하며 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획으로든 무지로든, 원하던 저항하던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끈질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에게 종노릇하던 죄인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지만, 성도는 잔재하는 죄와 싸우며, 성장하며 성숙해 집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믿음을 굳건히 합니다. 남은 죄를 향한 노예근성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극복합니다. 분명 자유를 얻었는데,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만드셨음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죄를 대적하여 승리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무엇입니까? / 요한복음 9:1-14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맹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놓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놓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무엇입니까? / 요한복음 9:1-14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본질과 비본질, 핵심과 비핵심에 관하여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비본질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본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신 것은 그를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궁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흠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앞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이런 행위를 했을 리 없다며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놓친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보며, 그를 붙잡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기 보다는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일까 궁금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어긋났습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인 사랑을 깨닫지도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본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잣대로 안식일에 하면 안되는 일들을 정해 놓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율법에 관한 한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이 정작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놓쳤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은 사랑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놓쳤습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했던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것, 핵심에서 크게 벗어난 것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런 논쟁과 판단을 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놓쳤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다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랑입니다. 비핵심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적용과 실천 노트

Application Note

교회와사역

[최근 사우스이스턴 대학교 선교학 교수인 척 로리스 목사가 '처치리더스닷컴'에 '예배인도자(찬양리더)들을 위한 기도 10가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1. 그들이 인도 할 때 순결해 지도록 기도하라.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만으로는 교회가 음악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 경건은 필수적이다.
2. 예배 팀이 진실로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지도자들이 직면 한 가장 큰 투쟁 중 일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같은 팀 멤버들로부터 온다. 팀 단결을 위해 기도하라.
3. 그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인도하도록 기도하자. 목사인 나는 설교자로서 자신의 능력으로 말하려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재능 있고, 훈련 받고, 경험이 풍부하고, 종종 그들이 하는 일에서 최고인 예배 음악 인도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4. 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대부분의 예배에서 전체 회중을 바라볼 때 산만해지기 쉽다.
5. 조용히 자신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모든 사람들이 무대에 있는 리더들을보고 있으며, 리더들은 그들이 인도하는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자신의 인생이 고뇌로 가득 차있을 때 그렇게하기가 어렵다.
6. 잠재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라. 예배 인도자들은 종종 예배 스타일 선호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종종 많은 불만을 받을 수 있다. 불평하는 이들로부터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자.
7.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기도하자. 때로는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세부사항들에 집중할 때가 있다. 그런 일이 교회의 예배 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8. 적들이 그들을 교만으로 유혹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예배에서 당신의 절대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사이의 경계는 면도날과 같이 얇다.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보호를 기도하라.
9. 노래하는 단어가 말하는 단어의 준비 과정이 되길 기도하라. 이러한 작업은 배타적이지 않다. 그들은 보완적이다. 둘 다 중요하다.
10. 누군가가 이번 주말 예배인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길 기도하라. 이 기도를 드리고 당신이 감사를 표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길 바란다.

-크리스찬 투데이 (9/21) -

한 주의 기도

'3주년 감사 찬양예배의 준비 과정에서 각자의 개성을 내려 놓고 주님 주시는 힘을 얻으며 은혜 받게 하소서. 예배공동체, 신앙공동체에서 나의 교만과 부덕함이 문제의 근원임을 고백하며 치유, 회복, 섬김이 열매로 나타나서 섬김의 교회공동체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섬김의 교회에서 찬양으로 헌신하면서, 또한 동역하는 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요즘 나의 고백은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이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와 나의 힘ियो
 여호와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오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예전에 나는 뭐든지 열심히 하기만 하며 다 잘 풀릴 줄 알았었다.
 힘겨운 이민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 생활도. 그러나 돌아보니
 이민생활 20년 중, 최근 10년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다.
 물론 더 참기 힘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겠지만 나에게
 그 기간이 극복하기 힘든 순간들이었던 것 같다.

이제야 깨닫게 돼지만 특별히 주님이 내 몸을 쳐서 깨닫게 하실 때
 가장 길고 큰 고통이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헤아리기 전까지.
 그러나, 도리어 그 고통이 계기가 되어 찬양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철없던 나이에 주님께 서원했던 것이 생각났다.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앞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래 놓고는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내 스스로 헌신의 약속을 실천하지 않으니 내 몸을 치셔서 내가 주님께
 한 약속을 깨달아 다시금 돌이키게 해 주셨던 것이다.

오늘도 이 찬양은 나의 고백이다. 가사처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 가야겠다.

- 홍현근 집사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EM PASTOR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5:40 AM
SATURDAY 6: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